

단풍나무 불꽃

김동일 >> 소방기술사·오리엔트 이앰씨 전무

나무를 태울 때 가장 아름다운 색을 내는 것은 단연 사과나무 불꽃이라는 주장이 많다.

타오르는 불꽃을 유심히 보면 거개의 빛깔은 노란색인데, 이상스럽게도 우리에게 불꽃은 빨간색으로 각인되어 있고 화재와 소방을 상징하는 색도 그래서인지 빨간색이다. 하지만 수많은 나무 불꽃 가운데 특이하

게도 사과나무 불꽃은 그 온도와 상관없이 파란색을 띤다.

불나무가 있다. 스키 목과 더불어 일본의 2대 고유 수종으로 대표되는 노송나무(檜)를 일본 사람들은「불나무(火

の木)라 부른다. 원시시대에 이 나무 구멍에 막대기를 꽂고 양손으로 비벼 돌려 불을 일으켰던 데서 유래되어 그리 부른다고 전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청명(淸明)날에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로 새 불을 일으켜 각 관청에 배분하였으며, 중국에서는 겨울에 느티나무의 목재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는 풍속이 있었다. 특이하게도 적도 원주민들은 마른 왕대를 맞부딪쳐 불을 피운다고 하니 이들 나무는 각각 그 나라의 불나무인 셈이다.

아궁이에서건 캠프에서건, 나무를 태울 때 알아둘만한 속설(俗說)들을 살펴보았다.

▶ 목련나무 - 여름철 장마가 길어 집안에 습기가 가득하면 목련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어 나쁜 냄새와 함께 습기를 없애기도 한다.

▶ 오리나무 - 숯은 화약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대장간의 숯불로도 중요하게 여겼다.

▶ 자귀나무 - 잎을 불살라 고약을 만들면 접골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간혹 열매를 말려 불에 볶아서 약으로 먹기도 하였다. 사찰에서는 향의 대용으로 태운다.

▶ 등나무 - 중국에서는 등나무로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을 피우면 다른 향과 잘 조화되며 자색의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 그 연기를 타고 신이 강림한다고 여겼다.

▶ 감나무 - 일본에서는 감나무를 불에 태우면 눈이 멀고 이가 아프며 미치게 된다고 하여 이를 금기시 한다.

▶ 산사나무 -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결혼하는 신부의 관을 산사나무의 작은 가지로 장식했으며 신랑과 신부가 이 나무 가지를 든 들러리를 따라 입장하고, 이 나무로 만든 횃불 사이로 퇴장을 하였다.

▶ 마로니에 - 세계 4대 가로수로 분류되는 그 유명한 마로니에 나무.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목탄은 바로 이 나무의 숯으로 만들어진다.

캐나다의 국기에 마음껏 그려져 있는 사탕단풍나무의 장작을 「떨감의 여왕」이라 별명 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벽난로에 불을 지피면 불뿔이 튀지 않으면서도 불꽃의 색이 아름답고 냄새가 좋을 뿐 아니라 뒤에 남는 재의 색깔까지도 깨끗하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나무 가지 하나를 태워도 그 모양과 쓰임새는 각각인 것 같다.

